



벤 김



문지영



김태형



김다미

♪ 봄바람에 실려오는 꿈의 선율 ♪

젊은 클래식 연주자들 광주에 온다

피아니스트 벤 김·김태형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서 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피아니스트 문지영 광주시향 협연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이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쇼팽 콩쿠르 우승에 이어 임동혁, 김선욱, 윤드리 등 젊은 피아니스트들의 음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봄을 맞아 젊은 클래식 연주자들이 광주를 찾는다.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 무대를 마련하고 있는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의 올 기획 연주회 첫번째 주자는 피아니스트 벤 김(18일 오후 7시30분)이다. 지난 2006년 제55회 뮌헨 ARD 국제 콩쿠르에서 피아노 부문 1위를 차지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그는 피바디 음악원 최우수 졸업상을 수상했다. 현재 베를린 음대에서 수학하

고 있으며 전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주 레퍼토리는 야나체크의 '피아노를 위한 네 개의 소품, 안개 속에서', 제프스키의 '피아노를 위한 꿈들 파트 1중 꿈', 스크랴빈의 '피아노 소나타 제5번', 드뷔시의 '기쁨의 섬',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 3번'이다. 4월 12일 열리는 피아니스트 김태형 독주회도 클래식 팬들이 기다리는 공연이다. 지난 2014년 포르투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 및 베토벤 특별상을 받으며 이름을 알린 김은 지난 2010년에는 쾰른 자베스 콩쿠르에서 5위 입상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뮌헨 국립음대, 차

이코프스키 음악원 등에서 수학한 김씨는 유럽과 러시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트리오 가온 멤버로도 활동 중이다. 김씨는 연주회에서 부조니의 '10대의 오르간 코랄 전주곡', 슈만의 '피아노소나타 2번' 리스트의 '오르간을 위한 프렐류드와 푸가 a단조 작품 22', '순례의 해-제2년 페트라르카의 소네트 104번' 등을 연주한다. 두 공연 모두 전석 2만원, 문의 062-360-8437.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와 피아니스트 문지영은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협연을 갖는다. 김다미는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정기 공연에서 대곡으로 꼽히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한다. 2012년 하노버 요아힘 국제바이올린콩

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씨는 제53회 파가니니 국제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 및 최고의 파가니니 카프리스 특별상을 수상하며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루체른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리시아들을 개최하기도 했다. 여수 출신으로 제네바 국제콩쿠르 1위에 이어 지난해 제60회 부조니 콩쿠르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우승하며 화제를 모았던 문지영은 오는 6월 27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클래식 팬들을 만난다. 광주시향과 협연하는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2번'이다. 김홍재 객원지휘자(울산시향 상임지휘자)와 호흡을 맞출 그녀는 광주시향이 창단 40주년을 맞아 도쿄 예술극장에서 30일 진행하는 연주회 무대에도 설 예정이다. 티켓 가격 1만원~3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지난 3일 오전 10시 40분,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예술극장 2 주변은 삼삼오오 몰려든 관객들로 북적거렸다. 11시부터 시작되는 공연의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40~50대 주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부부와 20대 청년들도 종종 눈에 띄었다. 일행으로 보이는 40대 주부들은 누군가의 가방에서 꺼낸 과자를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다. 이들이 오전부터 예술극장에 모여든 이유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문화전당의 브런치콘서트 '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1시)을 즐기기 위해서다. 휴식의 의미

를 주었다. 오랫동안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 온 그의 남다른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무대 인사를 건넨 그에게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모닝콘서트, 마티네 콘서트로도 불리는 브런치 콘서트의 원조는 서울 예술의 전당의 '11시 콘서트'다. 지난 2004년 예술의 전당은 저녁 준비로 밤 공연을 관람하기 힘든 주부들을 위해 '11시 콘서트'를 무대에 올렸다. 하루 일과 중 남편과 아이들을 직장과 학교로 보내고 한숨을 돌리는 이 시간을 겨냥한 것이다. '오전에 관객들이 모임까?'라는

브런치 콘서트

인 '봄'과 공연에 대한 '쉬운' 접근을 뜻하는 문화전당의 2016년 야심작이다. 유명 연주자의 공연은 아니지만 이날 지휘자 금남세의 해설이 곁들여져서인지 500여 석의 객석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었다. 지휘봉이 아닌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오른 금남세 지휘자는 아담하면서도 격조 있는 예술극장의 분위기에 청찬을 아끼지 않았다. 첫 출연자는 그가 교장을 맡고 있는 서울예술고등학교의 현아 4중주단 '소리양상블'. 관객들의 편안한 감상을 위해 이날 콘서트의 레퍼토리는 귀에 익숙한 생상의 동률 사육제 중 '백조',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스 작품 28', 헨델-할브르센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파사칼리아' 등이었다. 이날 콘서트의 백미는 금남세 지휘자의 위트 넘치는 해설이었다. 연주를 시작하기 전 곡(曲)의 전반적인 설명은 물론 중간 중간 특징적인 부분을 유머를 곁들여 해설하는 등 클래식에 대한 거리감을 좁

우려고 있었지만 주부들의 '틈새 시간'을 공략한 덕분에 전석매진(2500석)이라는 대박을 터뜨렸다. 당시 오전 11시에 여는 브런치 콘서트는 국내에선 생소한 공연장르였지만 김홍배 예술의전당 사장이 도입해 직접 해설자로 나서면서 공연계의 히트상품으로 떠올랐다. 이처럼 관객들의 반응이 뜨겁자 국립극장, 성남아트센터, 세종문화회관, 대구문화회관 등 다른 공연장들도 앞다퉈 브런치 콘서트를 간판 프로그램으로 개설해 주부들에게 예술의 향기를 선사하고 있다. 물론 지역에서도 1~2년 전 광주문화재단과 광주문화회관이 브런치 콘서트를 선보인 바 있다. 하지만 예산과 기획력이 부족해 반짝 이벤트로 끝나는 바람에 흐지부지된 상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문화전당의 브런치 콘서트에서 보여준 관객들의 환호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예술로 시작하는 아침. 문화광주가 꿈꾸는 미래이기 때문이다. <편보각·광·문화선임기자>



광주시립합창단 창단 40주년 신춘음악회

내일 광주문화회관

광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임한규)이 올해로 창단 4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올 한해동안 다양한 기념 공연을 준비중인 합창단이 시리즈 첫번째로 '신춘음악회'를 준비했다. 1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1부에서는 하이든이 남긴 아름다운 미사곡

'넬슨 미사'를 선보인다. 본래 제목은 '불안한 시대의 미사'(Missa in Angustiis)였던 작품으로 하이든이 음악을 작곡 중이던 1798년, 넬슨 제독이 이끄는 영국함대가 나폴레옹군을 상대로 대승 소식을 전한 후 '넬슨 미사'로 불리게 됐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트럼펫, 팀파니, 오르간 반주가 어우러지며 광주시향 단원인 추선호, 이현동씨와 오르가니스트 황양숙 호신대 교수가

협연한다. 2부에서는 합창 명곡을 공연한다. 한국가곡 '소쩍새', '바람은 남풍', '꽃파는 아가씨', '나물개는 처녀'와 아카펠라를 선보이는 '더 리얼 그룹'의 'I sing you sing', 비틀즈의 'Yesterday'를 아름다운 하모니로 들려준다. 또 기발한 합창 무대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작곡가 E. 휘태커의 'Little Birds'도 만날 수 있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062-415-5203~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11일 '시민과 함께 매화 그리기'

광주시립미술관이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외공원 흥매화 부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매화 그리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광주지역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중외공원 매화를 그려보며 봄을 맞는 시간이다. 특히 작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을 통해 문화진입 장벽을 낮추고 중외공원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참여 작가는 노여운, 류재용, 이선득, 이상훈, 오광섭, 위진수, 장용림, 정경래, 정선휘, 조규환, 조현수, 황순철, 허임석 등이다. 또 광주예술고등학교 학생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간단한 스케치, 수채화를 그릴 수 있는 개인 회구를 준비해 오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613-539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북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북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북성 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친절하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